

지향성 개념

—후설의 브렌타노 비판을 중심으로—

송 인 용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1. 서언

브렌타노는 자신의 1874년 저작인 『경험적 입장에 선 심리학』에서 자연 과학의 대상인 물리 현상으로부터 심리학의 대상인 심리 현상을 구별하면서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¹⁾라고 규정한다. 반면 후설은 1900-1901년 발간한 그의 『논리 연구』에서 스승인 브렌타노의 지향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향성 개념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모든 지향적 체험은 객관화 작용이거나 그러한 작용을 토대로 하는 체험이다”²⁾라고 언명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짧은 문장이 마치 대구를 이루듯 그 문법적 구조가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내용과 의의는, 둘 사이에 이미 비판 정신이 개입된 이상 사뭇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의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양자 사이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후설은 1913년 발간한 『이념들 I』에서 “전체 현상학을 포괄하는 주제는 지향성이다”³⁾라고 천명하는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현

1) F. Brentano,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hrsg. von O. Kraus(Hamburg, 1973), s.120.

2)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2. Bd. 1, T. hrsg. von U. Panzer(Hague, 1984), s.514. 이하 'LU II/1'로 약함.

3)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1. Buch, hrsg. von K.

상학—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이 탐구하여야 할 사태로서의 저 '지향성' 개념을 바로 브렌타노에게서 얻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후설이 자신의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 스승의 지향성 개념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상학의 무한한 전개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게 될 그 나름의 지향성 개념을, 후설은 선대 철학자와의 부단한 대결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브렌타노에게 있어 '심리 현상'과 '표상'이었던 것이 왜 후설에 이르러서는 '지향적 체험'과 '객관화 작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는, 브렌타노의 지향성 개념에 대한 후설의 비판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브렌타노의 '심리 현상'과 지향성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2절), 브렌타노의 물리/심리 현상 구별 기준에 대한 후설의 비판 내용을 검토한 후에(3절), 이러한 비판을 통하여 형성된 후설 자신의 지향성 개념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4절).

2. 브렌타노의 '심리 현상'과 지향성

2.1 현대 철학에 지향성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일은 일반적으로 브렌타노의 업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 스킨라 철학 말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혼탁해져 결국 논의의 장에서 밀려나게 된, 그리하여 르네상스 및 근대 철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어 마침내 의식 내용, 관념, 개념, 사유 등 다른 철학적 개념들에 의해 대치되어 버린 지향 개념을 현대 철학적 논의의 중심 개념으로 부활시킨 브렌타노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철학을 뿌리로부터 개혁하려는 브렌타노의 소명 의식은 그로 하여

Schuhmann(Hague, 1976), s.337. Der Problemtitel, der die ganze Phänomenologie umspannt, heißt Intentionalität.

금 새로운 “학문적인 철학”의 가능성을 모색케 하였다. “무선입견의 철학”으로 이해되는 이 학문적인 철학은 하나의 탁월한 바탕 학문을 필요로 하는데, 브렌타노는 하나의 새로운 심리학을, 즉 “경험적 입장에 선 기술적 심리학”을 이러한 바탕 학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영혼론』에서 “영혼은 어떤 점에서 모든 존재자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존재자를 취급하는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세계에 속하는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영혼의 해부학으로서의 기술 심리학은 모든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에 필수 불가결한 바탕을 제공한다고 여겨졌던 까닭이다.⁴⁾ 여기서 ‘영혼’의 본질 구조가 바로 지향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오래 전에 철학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지향 개념을 브렌타노가 왜 다시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2.2 언급한 브렌타노의 저술 『경험적 입장에 선 심리학』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 심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심리학은 브렌타노의 규정에 따르면 “심리 현상들에 관한 학문”이다. 이러한 규정이 가능한 것은 그가 먼저 현상 일반을 물리 현상과 심리 현상으로 구분하기 때문인데, 그리하여 결국 의식 내지 지향성이 심리 현상의 고유한 계기로서 이해되는 한, 브렌타노의 지향성 개념은 바로 심리학의 대상인 저 심리 현상을 물리학의 대상인 물리 현상과 구별해 내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다.⁵⁾

브렌타노는 “우리는 두 명칭, 즉 물리 현상과 심리 현상이라는 두 명칭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두 현상의 일반적인 구별 기준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 각각의 예를 먼저 들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리 현상의 예는 감각이나 상상을 통하여 모든 표상(Vorstellung)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표상이라 함은 표상된 것이 아니요, 표상 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音を 듣는 것, 有色的 대상을 보는 것, 따뜻하거나 차가움을 느끼는 것

4) 박찬영, 「브렌타노의 지향성」,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식 지향성』(서광사, 1992), pp.162-163.

5) F. Brentano, 전게서, s.109.

(= 감각하는 것) 외에 이와 유사한 상상적 상황들까지도 심리 현상의 예가 된다.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모든 판단(Urteil), 모든 기억, 모든 기대, 모든 추론, 모든 확신 내지 사념, 모든 의심도 심리 현상이다. 더욱이 모든 정서 및 의지 작용(Gemütsbewegung), 요컨대 기쁨, 슬픔, 공포, 희망, 용기, 단념, 분노, 사랑, 미움, 욕구, 의지, 의도, 경악, 경탄, 경멸 따위도 모두 심리 현상이 된다. 반면 물리 현상의 예로는 내가 보고 있는 색, 형태, 풍경, 내가 듣고 있는 화음, 내가 감각하고 있는 따뜻함, 차가움, 냄새 및 상상 속에서 나에게 현상하는 그와 유사한 형성물을 들 수 있다.”⁶⁾

2.3 이렇듯 구체적인 예를 들어 두 현상을 일견한 후에, 브렌타노는 본격적으로 심리 현상을 물리 현상으로부터 구별 가능케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들 기준은 『경험적 입장에 선 심리학』 제2권 제1장 3-8절에 상술되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2.3.1 물리 현상과 심리 현상 사이의 구별 기준으로서 브렌타노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冒頭에서 소개한 바 있지만, 바로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라는 기준이다. 여기서 물론 표상은 표상된 것이 아니라, 표상 작용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갖는다는 말은, 이와 같은 표상 작용이 판단 작용의 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욕구 활동의 토대를, 나아가 다른 모든 심리 작용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브렌타노는 “어떤 것이 표상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 판단할 수도 그것을 욕구할 수도 희망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⁷⁾ 예컨대 ‘꽃’이라는 표상과 ‘빨갳다’라는 표상이 없다면, 우리는 ‘저 꽃은 빨갳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나아가 ‘저 꽃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 작용조차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6) 상계서, s.111-112. 필자의 강조임.

7) 같은 책, s.112.

판단의 토대는 표상이며, 욕구 작용의 토대는 바로 그러한 표상을 토대로 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2.3.2 위의 기준은 물리 현상과 구별되는 심리 현상의 근본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심리 현상을 두 부류, 즉 표상과 표상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까닭에 물리 현상/심리 현상의 구별 기준으로서는 그다지 통일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에 브렌타노는 심리 현상 전체를 물리 현상과 구별짓는 ‘전적으로 통일적인 규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형식을 지니는 바, 곧 “심리 현상은 延長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래 된 테제이다.⁸⁾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심리 현상은 물리 현상과는 달리 연장이나 장소적 규정성을 지니지 않는 현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별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를 원용해도 좋겠다. 더욱이 공간을 외감의 직관 형식으로 설명한 칸트는 말할 나위도 없다.”⁹⁾

2.3.3 그렇다면 심리 현상은 부정적인 형식으로만, 다시 말해 소극적으로만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심리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낡은 기준만을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브렌타노가 중세 이후 철학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지향 개념을 다시금 논급하게 된 사정이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그는 심리 현상의 긍정적·적극적 규정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 기준으로 내놓은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심리 현상은 대상에 지향한다”라고 하는 테제이다. 브렌타노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각각의 모든 심리 현상은 중세 스콜라 학자들이 대상의 지향적(내지는 심적) 내재(die intentionale(auch wohl mentale) Inexistenz eines Gegenstandes)라고 불렀던 것, 그리고 우리가, 다소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에 관계함(die Beziehung auf einen Inhalt), 어떤

8) 같은 책, s.120.

9) 같은 책, s.121.

대상을 향함(die Richtung auf ein Objekt)(여기서 대상이 하나의 실재로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worunter hier nicht eine Realität zu verstehen ist)), 또는 내재적 대상성(die immanente Gegenständlichkeit)이라고 부르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¹⁰⁾ 심리 현상 각각은, 비록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를 자기 안에 대상으로서 포함하고 있는데, 그 결과 “표상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표상되고,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승인되거나 부인되며,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사랑 받고, 미움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미움 받고, 욕구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욕구된다.” 요컨대 심리 현상은 “지향적으로 그 어떤 대상을 자기 안에 포함하는 현상”인 바, 이러한 적극적 규정은 물리 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심리 현상만의 고유한 성격에 대한 규정인 셈이다.

2.3.4 역시 모든 심리 현상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의 기술이자, 동시에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 기준인 네 번째 테제는 “심리 현상은 내적 의식 속에서만 지각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심리 현상은 내부 지각의 유일한 대상이라는 뜻이다. 반면 물리 현상의 경우에는 외부 지각만이 가능할 따름이다. 아무튼 브렌타노에 의하면 내부 지각만이 직접적이고도 허위가 없는 명증(unmittelbare, untrügliche Evidenz)을 지니는데, 이 명증은 경험 대상의 모든 인식 하에서 오로지 내부 지각에만 속하는 명증이다.¹¹⁾ 그렇지만 이 경우 내부 지각은 그저 직접적으로 명증적인 유일한 지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본래적 의미에 있어 ‘유일한’ 지각이 된다. 그리하여 브렌타노는 “소위 외부 지각은 엄격히 말하자면 지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한다.¹²⁾

2.3.5 이와 같이 내부 지각의 유일한 대상인 “심리 현상에는 지향적 존재 외에도 현실적 존재가 그에 속한다”는 것이 물리/심리 현상

[10] 같은 책, s.124-125.

[11] 같은 책, s.128.

[12] 같은 책, s.129.

구분을 위해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다섯 번째 기준이다.¹³⁾ 즉 물리 현상인 색, 音, 따뜻함 따위는 오직 현상적이고 지향적으로만 존재하는 반면, 인식, 기쁨, 욕구 등의 심리 현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브렌타노가 “어떤 하나의 색이, 우리가 그것을 표상할 경우에만 우리에게 현상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 색이 표상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듯이 물리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¹⁴⁾ 다만 이러한 물리 현상의 존재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을 따름이다.¹⁵⁾ 다시 말해 그것은 오직 현상적이고 지향적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 현상에 대해서 지향적 존재 외에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¹⁶⁾

2.3.6 브렌타노가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을 위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준은 “심리 현상들은 그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통일체로서 현상한다”고 하는 것이다.¹⁷⁾ 반면 물리 현상들은, 설혹 그것들이 동시적으로 지각된다 하더라도, 심리 현상의 경우에서처럼 유일한 어떤 현상의 부분 현상들로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점과 관련해 브렌타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만일 우리가 색, 울림, 따뜻함, 냄새를 동시에 지각한다면, 이 모두를 하나의 특별한 사물에다가 귀속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봄, 들음, 따뜻함을 느낌, 냄새 맡음이라는(위의 물리 현상 각각에) 상응하는 감각 작용들의 다양성을, 또한 이러한 감각 작용들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의욕, 감정 및 숙고를,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감각 작용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지각을, 우리가 하나의 통일적인 현상의 부분 현상들로, 또 하나의 유일한 통일적 사물로 간주하지 않을 수는 없다.”¹⁸⁾

13) 같은 면.

14) 같은 책, s.130.

15) 같은 책, s.131.

16) 같은 책, s.132.

17) 같은 책, s.137.

18) 같은 책, s.136.

2.4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 기준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게다가 그 기준들 각각의 비중이 모두 동일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브렌타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심리 현상은 대상에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즉 그 자신 '심리 현상의 긍정적·적극적 규정'이라 부르고 싶어했던 세 번째 기준이다.¹⁹⁾ 실제로 그는 『경험적 입장에 선 심리학』 제2권 제1장 9절에서 물리/심리 현상을 구별하기 위한 위의 여섯 가지 기준들을 요약한 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리 현상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징표는, 의심할 바 없이 바로 지향적 내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하이데거 역시 브렌타노가 이러한 지향적 내재를 곧 '심리적인 것의 근본 구조(Grundstruktur des Psychischen)'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는데,²⁰⁾ 아무튼 '각각의 모든 심리 현상에는 대상적인 어떤 것이 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심리적인 것, 다시 말해 심리 현상의 근본 구조를 이룬다면, 브렌타노가 표상, 판단, 정서 및 의지 작용이라고 구분하는, 서로 다른 심리 현상들도 공히 지향적 내재라는 본질 구조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예컨대 표상함에 있어서는 표상된 것이,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단된 것이, 그리고 욕구 함에 있어서는 욕구된 것이 그 각각의 심리 현상에 지향적으로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 현상이 대상으로 향하고—여기서 '~로 향함'이라는 계기는 바로 '지향'을 의미하는 바—, 대상은 각각의 심리 현상에 내재한다는 게 브렌타노의 세 번째 테제라면, 그의 첫 번째 테제는 이러한 '지향적 내재'라는 속성을 갖는 심리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들 사이의 관계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심리 현상에는 표상, 판단, 정서 및 의지 작용이 있으며, 그 중 표상만큼은 단독으로 심리 현상이 되거나 나머지 두 현상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한편 '심리 현상은

19) 2.3.3 참조.

20) M. Heidegger,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s*(Frankfurt a.M., 1979), s.26.

내적 의식 속에서만 지각된다'고 하는 브렌타노의 네 번째 테제는 지각을 내부 지각과 외부 지각으로 나누고 심리 현상을 전자의 유일한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요, 또 '심리 현상에는 지향적 존재 외에도 현실적 존재가 그에 속한다'고 하는 그의 다섯 번째 테제는 심리 현상이 지향하는 대상의 존재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심리 현상은 延長을 갖지 않는다'라거나 '심리 현상은 언제나 통일체로서 현상한다'고 하는 기준은 소극적이고 부차적이다.

어쨌거나 이들 여섯 가지 기준이 서로 무관하다고 여겨선 안 된다. 간단하게 심리 현상의 예라고 할 수 있는 꽃의 표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세 번째 테제로부터 우리는, 심리 현상이 표상함이라는 방식으로 대상인 꽃으로 향하고 이 꽃은 당해 심리 현상에 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꽃의 표상은 다른 종류의 표상, 가령 '빨강다'라는 표상과 더불어 판단을 형성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테제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꽃 자체는 물리 현상으로서 현상적이고 지향적으로 존재할 따름이지만 그것의 표상은 명증을 지니는 내부 지각의 대상인 심리 현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꽃의 표상이 延長을 갖는다거나 통일적이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심리 현상에 대한 여러 규정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 규정들 각각이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심리 현상 일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세 번째 기준이 안고 있는 저 '지향' 개념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점이 명백해진다. 이미 브렌타노 자신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거니와, 이 세 번째 기준이야말로 바로 그의 지향 개념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테제인 셈이다.

3. 브렌타노의 물리/심리 현상 구별 기준에 대한 후설의 비판

3.1 『경험적 입장에 선 심리학』은 심리학주의를 표방한다.²¹⁾ 따라

서 위에서 살펴본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 기준이나 이에 기반을 둔 브렌타노의 지향 개념은 다분히 심리학주의에 채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주의는 의식 작용과 이 의식 작용이 지향하는 대상이라는, 상관 관계의 두 항 가운데 전자에만 치중하는 까닭에 대상, 특히 그것의 존재 방식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유발하기 쉽다. 그리하여 예컨대 브렌타노도 지향적 대상의 존재론적 성격—과연 그것이 비실재적이나 실재적이나라는—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처음에 지향적 대상을 비실재적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비록 나중에 심리 현상이 지향하는 대상은 초월적인 실재 대상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의식이 초월적인 실재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 사이에 양자를 매개해 주는 어떤 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 즉 중세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표상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²²⁾

3.2 후설의 『논리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심리학주의에 반대한다. 즉 그에 의하면 심리학주의는 의식 작용과 의식 내용인 대상을 혼동하는 바, 초시간적·객관적인 의미를 지니는 존재인 지향적 대상마저 심리 현상의 하나인 표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논리적 사고도 경험적인 사고 작용이 되고, 논리학의 법칙도 사고라는 심리 작용의 법칙이 되어, 결국 진리의 상대주의 내지는 회의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브렌타노의 ‘심리학’이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들은 이제 후설의 ‘현상학’에 이르러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심리학주의를 표방하는 브렌타노의 심리학이 그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부터, 즉 심리 현상을 물리 현상과 구별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그의 지향 개념은 바로 두 현상의 구별에 근거하는 것이

21) 물론 브렌타노가 심리학주의를 끝까지 고수한 것은 아니다. “브렌타노는 심리주의자는 아니다. 그는 우리의 본능의 목적론적 특성에 경탄하는 자이며 전전한 상식의 옹호자이다.”(박찬영, 전제 논문, p.194).

22) 이남인, 「지향/지향성」, 『철학과 현실』 1994 가을호, p.325.

23) 한전숙, 「현상학」(민음사, 1996), pp.86-88.

라면, 후설의 현상학은 이러한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태를 확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후설은 브렌타노의 물리/심리 현상 구별 기준을 비판하면서 그 나름의 지향성 개념을 확보함으로써, 심리학주의 비판과 현상학의 사태 확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3.3 이 경우 후설이 브렌타노의 주장을 모조리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스승인 브렌타노의 이론을 한 쪽으로는 받아들이고 다른 한 쪽으로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향성 개념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후설의 현상학에 수용된 브렌타노의 학문적 성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향성 개념이다. 이 점과 관련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브렌타노가 지향성이라는 스콜라 개념을 심리학의 기술적 기본 개념으로 개조한 것은 일대 발견이며 만일에 이 발견이 없었다면 현상학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²⁴⁾ 이렇듯 후설은 자신이 주창한 현상학의 사태가 지향성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현상학의 사태로서의 지향성은 이미 브렌타노의 지향 개념과는 그 내용상 아주 다른 것이다.

후설이 브렌타노와 공유하는 부분은 비단 지향성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흔히 『논리 연구』는 후설 현상학의 기술적 심리학 단계를 대표한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서 ‘기술적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후설은 브렌타노에게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즉 두 사람 다 의식의 지향적 특성을 나타내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는 말이다.²⁵⁾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후설의 『논리 연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학적 논리학의 과제가 사라났고, 이와 더불어 논리학의 대상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수단에 대하여 자각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미 브렌타노의 기술적 심리학이 해 놓은 일을 보다 철저하게 반복하는 일이고, 동시에 논리학의 문제

24) E. Husserl, “Nachwort zu meinen ‘Ideen’”, in: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3. Buch, hrsg. von M. Biemel, 1952, p.155; 한전숙, 전제서, p.91에서 재인용.

25) 상계서, p.95.

를 심리학적·발생적 문제와 혼동하고 있던 동시대의 학풍에 맞서서 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일이다.”²⁶⁾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후설과 브렌타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후설의 작업은 여전히 기술적 심리학이라는 명칭하에 수행되고 있지만, 그의 문제 제기와 탐구 영역은 브렌타노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론 두 사람의 철학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심리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론적이므로— 따라 나온 자연스런 결과이다.²⁷⁾

3.4 그러면 후설과 브렌타노가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아래에서는 후설의 『논리 연구』를 중심으로 그가 브렌타노의 물리/심리 현상 구별 기준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실제로 후설은 브렌타노의 여섯 가지 테제 속에는 “현상, 특히 심리 현상에 대한, 나아가 내부 지각과 외부 지각에 대한 그의 개념들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모종의 애매성들이 파괴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²⁸⁾ 이제 그 각각을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다만 이 경우 제시된 여섯 가지 기준 가운데 후설의 지향성 개념 수립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두 번째와 여섯 번째 테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3.4.1 후설이 자신의 지향성 개념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역시 브렌타노의 세 번째 테제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주된 내용은 ‘심리 현상은 대상에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브렌타노는 심리 현상이 대상으로 향하고, 대상은 각각의 심리 현상에 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와 관련하여 후설은 브렌타노가 사용하였던 표현들, 혹은 그가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일상적인 표현들은 매우 오해를 낳기 쉽다고 지적하는데, ‘지각된, 상상된, 판단된, 소망된 대상들이(각각 지각하는, 표상하는 방식으로) “의식 안으로 들어

26) M. Heidegger, 전제서, s.30.

27) 한전숙, 전제서, p.95.

28) LU II/1, s.380.

온다(ins Bewußtsein treten)”거나, 역으로 “의식”이(혹은 “자아”)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대상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다(in Beziehung treten)”라는, 즉 ‘그러한 대상들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의식 안으로 받아들여진다(ins Bewußtsein aufgenommen werden)”’는 생각들이 그것이다.²⁹⁾ 지향적 체험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서 자기 안에 포함한다(etwas als Objekt in sich enthalten)”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³⁰⁾ 아무튼 후설에 의하면 이상의 표현들은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즉 첫째로 그것은 “어떤 실재적 사건의 경과나, 아니면 의식 내지 자아와 ‘의식된’ 사태와의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실재적인 관계 맺음이 문제된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둘째로 그것은 “똑같이 의식 속에서 내실적인 것으로 발견될 수 있는 두 사태인 작용과 지향적 대상과의 사이에 성립하는 어떤 관계가 문제된다”는, 마치 하나의 심리적 내용을 다른 심리적 내용 안으로 집어넣는 것과도 같은 어떤 관계가 문제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는 것이다.³¹⁾ 전자는 의식의 지향적 성격을 의식과 그밖에 있는 대상이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사태 사이의 실재적 관계로 보는 오해로서, 여기에는 마음속에 가지는 표상을 밖에 실재하는 대상의 심상(Bild) 또는 기호(Zeichen)로 보는 心象說(Bildtheorie) 또는 表象說(Repräsentationstheorie)도 해당된다.³²⁾ 반면 후자는 의식 내부에서 작용과 지향적 대상과의 사이에 어떤 공간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는 오해이다.³³⁾

이 두 번째 오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내재적 대상성(immanente Gegenständlichkeit)’이니 ‘지향적 혹은 심적 내재(intentionale oder mentale Inexistenz)’니 하는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데, 이에 후설은 무엇보다 ‘지향적 내재’라는 술어가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즉 그에 따르면 “작용과 대상이라는 두 사태가 체험적으

29) 한전숙, 전게서, p.93; LU II/1, s.384-385.

30) LU II/1, s.385.

31) 같은 면.

32) 한전숙, 전게서, p.93.

33) 같은 면.

로 존재하는(erlebnismäßig präsent)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체험되고서 그와 더불어 대상으로 향하는 지향적 체험이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과 이보다 포괄적인 전체라는 의미에서 두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지향적 체험이요, 그의 본질적이고도 기술적인 특성은 바로 지향이다.”³⁴⁾ 이러한 지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³⁵⁾ 그리하여 대상을 표상하거나 판단할 때 그 나름의 지향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향적 체험이 존재한다면, 결국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지향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때 대상은 “지향적으로 현전한다(intentional gegenwärtig).”³⁶⁾

물론 체험은 의식 안에서 그의 지향과 더불어 의식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대상의 존재 여부나 존재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능하다. 예컨대 대상은 사념 되고 그 대상을 사념 함은 체험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그저 사념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후설은 ‘의식에 대하여 주어진 것은, 표상된 대상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내가 주피터를 표상함은 비스마르크를 표상함과 다를 바 없으며, 바벨탑을 표상함은 켈른 성당을 표상함과, 정천각형을 표상함은 정천면체를 표상함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³⁷⁾

‘내재적 대상성’이나 ‘지향적 내재’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을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지향적 체험은 바로 비지향적 체험을 토대로 해서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바, 이러한 비지향적 체험에는 색의 감각, 음의 감각 따위의 감각 자료들이 속한다. 그런데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감각 자료들은 체험은 되지 않지만 지각은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향 체험의 내실적 존립에 속하는, 참된 의미에서 내재적인 내용들(= 감각 자료)은 지향적이지 못하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작용을 형성하고, 없어

34) LU II/1, s.386.

35) 같은 책, s.381.

36) 같은 책, s.386.

37) 같은 책, s.386-387.

서는 안 될 부분들로서 지향을 가늠케 하지만, 그 자체 지향된 것은 아니요, 더욱이 그것들이 작용 중에 표상된 대상은 아니다. 즉 나는 색의 감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색된 사물을 본다. 또한 나는 음의 감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가수의 노래를 듣는다.”³⁸⁾ 그리하여 후설은 비지향적 체험 영역을 보존하고 앞서 살펴본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내재적 대상’ 대신 ‘지향적 대상(intentionaler Gegenstand)’이라는 표현을 쓸 것을 제안한다.³⁹⁾

3.4.2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브렌타노의 첫 번째 테제는 ‘지향적 내재’라는 속성을 갖는 심리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브렌타노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표상’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인 까닭이다. 실제로 후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러한 규정(= 브렌타노의 첫 번째 테제)이 우리의 연구를 위해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표상 개념을 전제한다는 사정 때문이다. 간단히 구별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이 애매한 표상 개념이야말로 우리가 먼저 규명해야 될 사태이다.”⁴⁰⁾

후설이 나중에 규명해 내지만 표상 개념이 지니는 의미는 최소한 네다섯 개에 이른다.⁴¹⁾ 물론 여기서 이 모두를 열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물리/심리 현상의 구별을 위한 브렌타노의 첫 번째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 후설은 ‘작용 성질(Aktqualität)’로서의 표상과 ‘작용 질료(Aktmaterie)’로서의 표상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두 새로운 개념에 대해 잠깐 알아보기로 하자. 작용 성질이란 작용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순한 표상으로라든가, 판단으로라든가 또는 감정, 욕구 등으로 특징짓는, 작용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짓는 계기이다. 이에 대해서 작용 질료란 작용을 바로 이것의 표상, 바로 저것의 판단으로

38) 같은 책, s.387.

39) 같은 책, s.388.

40) 같은 책, s.383.

41) 같은 책, s.520 ff.

하는 작용의 내용을 말한다.⁴²⁾

이제 다시 브렌타노의 테제에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모든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증적인’ 주장이었다.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이 주장은 그렇게 명증적인 것이 못 되는 바, 그가 제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명제의 앞부분(= 모든 심리 현상은 표상이다)은, 만약 우리의 이해가 올바르게, 하나의 작용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표상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 뒤 부분은 한갓 작용 질료라는 의미에서 표상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뒤 부분, 즉 ‘모든 심리 현상은 표상을 토대로 한다’는 명제는, 우리가 표상을 완전한 질료(komplettierte Materie)로 해석하는 한, 진정한 명증성을 지닌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도 표상이 작용으로 해석된다면, 우리가 물리쳤던 그릇된 명제는 되살아날 것이다.”⁴³⁾ 요컨대 브렌타노의 테제는 ‘표상’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테제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가? 생각건대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브렌타노 스스로가 “여기서 표상이라 함은 표상된 것이 아니요, 표상 작용을 의미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3.4.3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내부 지각-외부 지각’이라는 개념 쌍을 즐겨 사용해 왔다. 이러한 두 지각의 구분은 데카르트가 정신(mens)과 신체(corpus)를 구별해 낸 후에, 로크가 內省(reflexion)과 감각(sensation)이라는 명칭하에 도입했던 것이다. 지각을 둘로 나누는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데, 로크에 의하면 외부 지각은 물질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요, 내부 지각은 우리 ‘정신’ 내지 ‘영혼’이 그의 고유한 활동(이는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사고 작용(cogitationes)이라 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지각이다. 그리하여 결국 지각의 구분이란 지각 대상의 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셈

42) 같은 책, s.425 ff.

43) 같은 책, s.475-476.

44) F. Brentano, 전제서, s.111 및 s.112; 2.2, 2.3.1 참조.

이다. 여기에는 지각의 발생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도 함께 고려된다. 즉 어떤 경우 지각은 물리적 사물이 감각 기관을 매개로 정신에 가하는 작용(Wirkung)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엔 정신이 이미 감각을 통해 얻어진 ‘관념’을 토대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⁴⁵⁾

이후 사람들은 로크의 이러한 조야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수정하고 심화하였는데, 경험적 심리학이, 외부 지각은 기만적인 반면 내부 지각은 명증적⁴⁶⁾이라는 두 지각 양식의 상대적 인식 가치에 대한 고래의 평가를 받아들인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리하여 ‘명증성(Evidenz)’은 내부 지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아무튼 이제 내부/외부 지각의 구별은 ‘현상(Phänomen)’ 개념과 만나면서 ‘심리 현상은 내부 지각의 현상이요, 물리 현상은 외부 지각의 현상이다’라는 저 유명한 정의를 낳게 되는 바, 이는 바로 브렌타노의 네 번째 테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상의 구분을 근거로 하여 ‘심리학은 심리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요, 자연 과학은 물리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정의마저 가능하게 된다.⁴⁷⁾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명증성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외부 지각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명증적이고 기만적이지 않은 지각과 비명증적이고 기만적인 지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 경우, 브렌타노가 그러했듯이, 물리적 사물, 성질, 사건 등의 지각을 외부 지각이라고, 따라서 그 외의 모든 지각들을 내부 지각이라고 이해한다. 그렇지만 명증/비명증 지각의 구분과 내부/외부 지각의 구분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 자아에 대한 모든 지각이나 자아와 관련된 모든 심적 상태의 지각은, 만일 여기서 자아라는 말로써 고유한 경험적 인격—‘자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지각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이를 지각한다고 믿는 바—을 의미한다면,

45)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2. Bd. 2. T., hrsg. von U. Panzer(Hague, 1984), s.752. 이하 ‘LU II/2’로 약함.

46) [D]ie äußere Wahrnehmung ist trügerisch, die innere evident.

47) LU II/2, s.753-758.

확실히 명증적이지 못하다. 다음과 같은 점도 역시 분명한데, 즉 심적 상태에 대한 대부분의 지각들은 그것들이 신체적으로 국소화되므로 명증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⁴⁸⁾ 요컨대 명증적이지 않은 심리 현상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후설은 ‘명증’이 반드시 내부 지각만의 특성은 아니고, 또 그런 까닭에 내부 지각만이 ‘그 단어의 본래적 의미에서 유일한 지각’일 수는 없다고 한다.⁴⁹⁾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부/외부 지각의 구별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심지어 그는 내부 지각이든 외부 지각이든 그 본질은 통각에 있으므로, 양자는 ‘완전히 동일한 인식론적 성격(ganz gleicher erkenntnistheoretische Charakter)’을 지닌다고까지 이야기한다.⁵⁰⁾ 브렌타노의 네 번째 테제는 포기되었다.

3.4.4 마지막으로 검토할 브렌타노의 다섯 번째 테제는 ‘심리 현상에는 지향적 존재 외에도 현실적 존재가 그에 속한다’라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엇보다 후설은 브렌타노가 현상(Phänomen) 개념의 애매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본다. 즉 그에 의하면 ‘현상’을 구분하는 두 가지 본질적인 방식이 존재하는데, 체험(Erlebnisse)으로서의 현상을 작용(Akte)과 비작용(Nichtakte)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그 하나요, 현상적 대상(phänomenale Gegenstände)으로서의 현상을 자기 의식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현상하는 것(solche, die als zu einem Ichbewußtsein gehörig erscheinen)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대상과 물리적 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다른 하나다.⁵¹⁾ 그런데 브렌타노는 이러한 두 가지 구분 방식을 혼동하고 있다는 게 후설의 지적이다. 요컨대 브렌타노는 물리 현상이라는 명칭에 감각 내용(= 비지향적 체험)과 현상하는 외부 대상을 혼동하고 있

48) 같은 책, s.761. 예컨대 ‘두려움이 목을 조른다’고 할 때 두려움이라는 심적 상태가 목이라는 신체의 일부에 국소화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심리 현상, 다시 말해 내부 지각은 더 이상 명증적이지 않게 된다.

49) 같은 책, s.769.

50) 같은 책, s.760-762.

51) 같은 책, s.773-774.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리 현상은 현상적이고 지향적으로만 존재하는 반면, 심리 현상에는 지향적 존재 외에도 현실적 존재가 그에 속한다”라는 브렌타노의 주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경우 물리 현상을 현상적 대상으로 이해한다면, 최소한 그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회화나 조각 등 예술적 표현의 대상들 대부분은 현상적·지향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대상들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그에 관계하는 현상 작용들(Erscheinungsakte)만이 내실적이고도 지향적인 내용을 지니고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물리 현상을 감각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예컨대 우리가 스위스의 화가 뵘클린이 그린 “낙원”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소유하게 되는 감각된(체험된) 색의 내용, 형상의 내용 따위는, 대상으로서의 그림에 대한 의식에 주어져서, 바로 이러한 의식의 내실적 구성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때 감각 내용들은 단지 현상적이고 지향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⁵²⁾

4. 후설의 지향성—그의 『논리 연구』를 중심으로

4.1 브렌타노가 제시한 물리/심리 현상 구별 기준은 후설의 비판을 통해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했다. 아울러 그의 지향 개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제 후설에게 남은 과제란 무너진 심리학 주위의 폐허를 들어내고 현상학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그는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한다.

4.1.1 인식론을 표방하는 후설의 『논리 연구』는 의식에 대한 연구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데 후설에 따르면 ‘의식(Bewußtsein)’

52) 같은 책, s.774-775. 물론 ‘현실적’이라는 말이 ‘의식밖에 존재하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는 바, 1. 경험적 자아의 내실적 현상학적인 전체 존립으로서의, 체험류의 통일에 있어 심적 체험들의 얽혀 있음으로서의 의식, 2. 고유한 심적 체험들에 대한 내적 지각 (inneres Gewahrwerden)으로서의 의식, 3. 모든 종류의 “심리 작용 (psychische Akte)” 내지 “지향 체험(intentionale Erlebnisse)”을 총괄하는 명칭으로서의 의식이 그것이다.⁵³⁾ 이 경우 두 번째 및 세 번째 규정은 모두 첫 번째 규정 아래로 포섭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규정은 결국 ‘의식 속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가리키므로 그 외연이 가장 넓기 때문이다. 반면 두 번째 규정은 비록 첫 번째 규정보다 그 외연은 좁지만, 의식 속에서 확인 가능한 모든 내용들이 내적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로소 의식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지만 내적 지각은, 그것이 브렌타노식의 내부 지각과 동일시되면 그 대상은 심리 현상에 머물고 만다. 뿐만 아니라 앞서 힘겹게 거부했던 예의 그 애매성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만다. 심리 현상에는 감각 내용이나 감각 복합과 같이 지향적이지 않은 심리 현상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설은 브렌타노가 사용하는 ‘심리 현상’이라는 말 대신에 ‘지향적 체험’이나 ‘작용’이라는 말을 쓸 것을 제안하는 바,⁵⁴⁾ 이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의식에 대한 세 번째 규정에 다름 아니다. 사실 후설의 브렌타노 비판은 의식에 대한 이러한 규정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후설은 브렌타노의 ‘심리 현상’을 보다 엄밀한 개념인 ‘지향적 체험’이라는 용어로 대신했다. 여기서 ‘체험’이란 ‘작용’이라는 현상학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체험’을 한정하는 형용사인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체험의 어떤 종류에 있어 공통적인 본질적 속성으로서, 지향이라는 성질(die Eigenheit der Intention), 다시 말해 표상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적인 것과 관계함(das sich in der Weise der Vorstellung oder in einer irgend analogen Weise auf ein Gegenständliches Beziehen)을 의미한다.⁵⁵⁾ 물론 ‘지

53) LU II/1, s.356.

54) 한전숙, 전게서, p.92.

55) LU II/1, s.391-392.

향'이라는 개념도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지향'을 '어떤 것에 특별히 유의함', 즉 '주목함'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후설에 의하면 "지향적 대상은 언제나 유의되거나 주목되는 것은 아니다."⁵⁶⁾ 요컨대 '주목함'도 지향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지향'이라는 말로써 어떤 의도나 목표 추구를 나타내기도 한다.⁵⁷⁾ 이것도 후설에 의하면 바른 이해는 아니다. 의도나 목표 추구로서의 지향 역시 지향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향이란 넓은 의미에서 '대상적인 것에 대한 의식적 관계'를 뜻하는 개념이다.

4.1.2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브렌타노의 첫 번째 테제, 즉 "심리 현상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바꿔 써도 되겠다. "지향적 체험은 표상이거나 표상을 그 토대로 하는 현상이다"라고. 이러한 주장은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이미 '작용 성질'로서의 표상과 '작용 질료'로서의 표상을 언급한 바 있지만,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표상 개념을 사용하는 브렌타노는 이러한 애매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표상'은 '심리 현상'과 마찬가지로 정적인 개념이다. 결국 후설이 브렌타노의 '심리 현상'을 '심적 작용'을 의미하기도 하는 '지향적 체험'으로 대체해 버렸다면, 위의 테제 속에 들어 있는 표상 개념 또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표상' 대신에 후설은 '객관화 작용'⁵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로써 우리는 드디어 冒頭에서 언급했던 명제를 얻게 되는 셈이다. 즉 "모든 지향적 체험은 객관화 작용이거나 그러한 작용을 토대로 하는 체험이다."

4.2 '표상'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적인 것과 관계

56) 같은 책, s.392.

57) 한전숙, 전거서, p.92 참조.

58) 이는 기술적 심리학의 단계인 후설의 『논리 연구』에서보다는 선험적 현상학에서 더 문제가 되는 개념이다.

합'이라는 후설의 지향성 개념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한전숙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그의 선형 철학의 길을 찾을 때와 똑같은 경우를 본다. 칸트는 그에 앞선 대립적인 두 조류, 합리론과 경험론에 번갈아 직접 몸을 담고 나서 그 둘을 종합하는 데서 자기의 고유한 길을 찾았다. 지금의 후설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19세기 말엽 유럽의 지배적인 두 조류, 심리학주의와 객관주의에 번갈아 몸을 담고 나서 그 대립되는 두 요구를 종합하는 데서 자기의 고유한 길을 찾는다. 종합이란 두 항의 단순한 총화나 결합이 아니라 止揚(Aufheben)을 말한다. 즉 두 항을 부정하되 각각의 장점을 같이 보유하는 새로운 입장이다. 그러니 후설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식 내용이기도 한 지식을 갖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묘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후설에서의 지향성 개념이다. 그리하여 이 지향성 개념은 후설 사상의 전개와 더불어 전개해 간다.”⁵⁹⁾ 요컨대 그는 ‘심리 현상’이라는 말을 피함으로써 심리학주의를, ‘표상’이라는 말을 피함으로써 표상주의를 지양했던 것이다. 이렇듯 전통과의 대결을 통해 획득된 지향성 개념은 그야말로 ‘사태 자체로!’라는 현상학의 근본 요청에 입각해 철저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가장 엄밀한 개념을 찾아 나섰던 후설이 이르러야만 했을 당연한 귀결이었던 셈이다.

5. 결어

지금까지 우리는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현상학이 탐구해야 할 사태로서의 지향성이 어떻게 브렌타노로부터 후설에게 繼承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우리는 후설이 스승인 브렌타노의 주요 개념들—예컨대 지향성, 기술적 심리학 등등—을 넘겨받으면서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현상학적 개념으로 정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모든 지향적 체험은 객관화 작용이거나 그러한 작용을 토대로 가진다”라고

59) 한전숙, 전거서, p.90.

말할 때에는, 그 속에 이미 純化된 의미의 지향성 개념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 연구』에서 확립된 지향성 개념이 어떤 수정이나 변화도 거치지 않은 채 그 이후의 30여 년간의 현상학적 분석을 주도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후설 현상학이 기술적 심리학의 단계에서 구성적 혹은 선형적 현상학으로 이행해 가면서, 또 구성적 현상학 내에서도 정적 현상학에서 발생적 현상학으로 이행해 감에 따라 현상학의 핵심 주제로서의 지향성 개념은 부단히 변화하고 수정되었다.⁶⁰⁾ 예컨대 『논리 연구』나 『이념들 I』로 대표되는 후설의 초기 및 중기 저작에서는 지향성이 “자기 동일적 대상에 대한 자아의 의식적 관계”로 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모든 지향 체험은 객관화 작용이거나 그러한 작용을 토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상학적 지평이 무한히 확장된 그의 후기 철학에서는 모든 체험이 —그것이 “...로 향함”이라는 계기를 지나는 한— 객관화 작용에의 기초 유무와 무관하게 지향적 체험으로 규정되는 것이다.⁶¹⁾

나아가 이러한 지향성 개념의 수정 및 변화는 비단 후설의 철학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하이데거 같은 이는 스승인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수정·보완하면서 이를 ‘심려(Sorge)’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신하고 있다.⁶²⁾ 뿐만 아니라 브렌타노도 짧지 않은 자신의 학문적 삶 동안에 지향 개념을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하지는 않았다.⁶³⁾ 이러한 사정들은 지향성 개념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다층적·다면적인 것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지향성 개념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얽힌 실 타래를 풀어 나가는 것보다도 같은 인내와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60) 이남인, 「발생적 현상학과 지향성 개념의 변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식 지향성』(서광사, 1992), p.261.

61) 이남인, 「본능의 현상학과 선형적 현상학」, 『철학연구』 제30집, 1992 참조.

62)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후설, 하이데거, 가다머」, 『철학논구』 제23집, 1995 참조.

63) 이 점 박찬영, 전제 논문 참조.

참고문헌

- Brentano, F.,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 hrsg. von O. Kraus, Hamburg, 1973.
- Heidegger, M.,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s, Frankfurt a.M., 1979.
- Husserl, E., Logische Untersuchungen, 2.Band 1.Teil, hrsg. von U. Panzer, Hague, 1984.
-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2.Band 2.Teil, hrsg. von U. Panzer, Hague, 1984.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1.Buch, hrsg. von Schuhmann, Hague, 1976.
- 박찬영, 「브렌타노의 지향성」,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식 지향성』, 서광사, 1992.
- 이남인, 「본능의 현상학과 선형적 현상학」, 『철학연구』 제30집, 1992.
- _____, 「지향/지향성」, 『철학과 현실』 가을호, 1994.
- _____, 「현상학과 해석학—훗설, 하이데거, 가다머」, 『철학논구』 제23집, 1995.
- 한전숙, 『현상학』, 민음사, 1996.